

□ 2023년 및 2024년 8월 31일 기준, 대외연구실적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3.1.1.~8.31.)		2024년(2024.1.1.~8.31.)		연구비 증감액	연구비 증감율
		과제수	연구비실적	과제수	연구비실적		
서울C	서울	273	31,694,064	260	36,134,377	4,440,313	14.0%
	의무	475	47,547,197	424	42,682,037	-4,865,160	-10.2%
서울C 소계		748	79,241,261	684	78,816,414	-424,847	-0.5%
국제C		550	76,699,277	553	72,667,419	-4,031,858	-5.3%
경희대 총계		1,298	155,940,538	1,237	151,483,833	-4,456,705	-2.9%

▷ 서울C는 의료기관 임상시험 실적(IRB) 포함

(자료제공: 산학협력단 R&D 기획팀)

▷ 전임교원 명단 기준: 2023년 4월(2023년 실적), 2024년 4월(2024년 실적)

□ 2023년 및 2024년 8월 31일 기준, 기술이전실적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3.1.1.~8.31.)		2024년 (2024.1.1.~8.31.)		기술료 증감액	기술료 증감율
	계약건	기술료 입금액	계약건	기술료 입금액		
경희대 총계(서울+국제)	39	2,318,842	35	3,955,994	1,637,152	70.6%

(자료제공: 산학협력단 R&D 기획팀)

R&D 예산 삭감에도 연구 실적 선방

서울 14% ↑, 의무 10% ↓, 국제 5% ↓

양현준 기자 yhj1001@khu.ac.kr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올해는 기존 대비 4조 6천억 원이 삭감된 정부의 R&D 예산안이 반영되는 해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은 지난 3월, 예산 감액의 파장이 교내 연구생으로 있는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보도한 바 있다. (위기에 몰린 대학원생, “박사과정 진학 무의미”/대학주보 제1718호/2024.03.05.) 예산안 삭감 발표 후 일 년이 지난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우리학교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봤다. 우리학교 연구자의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산학협력단 측으로부터 자료를 전달 받고 관계자를 만나봤다. 연구 현장 일선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수와도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대외연구 ‘선방’
의무·국제캠 ↓ 서울캠 ↑
기술이전 실적은 70.6% 상승

삭감된 정부의 R&D 예산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됐음에도

우리학교 연구 실적은 나름 선방했다. 산학협력단 R&D 기획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우리학교 대외연구비 수주 실적은 약 1,514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간의 1,559억 원 대비 2.9% 하락한 수치다. R&D 기획팀은 이에 대해 “작년 대비 소폭의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교수님들의 노고 덕분에 현재까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과제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대외연구비’라고 한다. 대외연구비는 각각 서울캠, 국제캠, 의무(의·약학 계열)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캠의 경우 올해 8월까지 361억 원의 연구비 실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다만 국제캠은 5.3% 감소해 726억 원의 연구비 실적을 보였다. 정부의 예산 삭감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단 R&D 기획팀 임성진 파트장은 “국제캠의 연구비 실적 5% 감소 주원인은 정부 R&D 삭감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협약을 맺은 과제들이라 할지라

도 연차별로 일정 연구비가 유지되는 편이 많다”면서도 “유독 2024년에는 연구비가 삭감된 부분 때문에 연차 연구비임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의무 영역도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이는 임상시험 실적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파트장은 “RB 실적이 지난해 대비 감소 추세인 부분이 핵심 요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RB실적은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연구 실적이다.

기술이전 실적은 대폭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기술이전 실적은 계약 35건, 기술료입금액 약 39억 원으로, 39건에 약 23억 원을 벌어들인 작년에 비해 7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은 연구자와 대학이 종료된 연구 성과의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등 실적 증가에도
일부 연구 현장과는 온도 차

다만 우려대로 일부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비 규모 축소 ▲연구생 인건비 삭감 ▲연구 과제 수주 선정

률 하락과 관련한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구비 수주 감소 폭이 서울캠보다 컸던 국제캠에서 두드러졌다.

R&D 기획팀은 “대형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이미 수주된 과제들의 당해연도 연구비가 삭감됐다”며 “부족한 연구비를 새로운 과제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과제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 연구자들이 연구비 삭감의 부담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연구원들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응용수학과에서 ‘계산수학 및 응용 연구실’ 지도교수로 있는 김혜현(응용수학) 교수는 “보통 연구 과제 신청으로 대학원생 인건비가 마련됐었다”며 “이제는 연구 과제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 옛날만큼 신청을 하면 선정률이 높지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큰 하락 폭을 보이지 않은 연구비 수주 실적과 달리 현장에서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그의 연구 분야가 순수 학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어 이러한 현상이 특정 학문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

했다. 우리학교는 현재 ‘6대 중점분야(▲우주과학 ▲바이오헬스 ▲양자 과학 ▲첨단소재 ▲AI ▲인류문명)’를 선정해 해당 분야에 교원 채용과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6대 분야라고 하는 그 분야도 물론 중요하다”면서도 “6대 분야에 많이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 학문이 있어야 다른 응용 연구도 할 수 있다”며 “기초 연구를 등한시하고 연구비 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절차 개선·제도적 뒷받침 강화
산학, “구성원 소통 확대할 계획”

산학협력단 측도 이를 인지하고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지원 행정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 기업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들의 과제 수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작년부터 R&D 기획팀을 조직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인 연구비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과제 발굴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R&D 기획팀 측의 설명이다. R&D 기획팀은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연구 환경의 어려움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